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작품 : 서영호·도미니코 (서면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입 당 송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 1 독 서 예레미야서 33,14-16

화 답 송 시편 25(24),4-5 7 8-9 10과 14 (◎ 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후렴) 주님, 당신께 제 - 영 혼 들어 올 리 나 - 이 다.


1.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2.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3.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오늘의 주보

 **2면**
이창신 신부님
<강론>

 **3면**
가톨릭영상교리
마지막편

 **4면~5면**
2022 부산교구 사목지침
<성체와 말씀의 해>

 **6면**
성경구절 암송하기,
2022 탁상용 달력 신청

대림 제1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제 2 독 서 테살로니카 1서 3,12-4,2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 송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1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세상 달력은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교회 달력(전례력)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고 마치는 것 말고, 교회 달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례력 한 해를 주기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 생애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거쳐, 그분을 하느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말하자면 전례력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한 해 동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례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전례력은 대림 시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성탄구유, 크리스마스 트리'하면 떠오

르는 예수님, 과거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맞이했던 아기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종말 때의 심판자, 하느님 나라의 완성자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위로와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그때의 기다림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당당히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실 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루카 21.28.34 참조) 교회는 기다림의 자세로 회개와 속죄를 강조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물로 가져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가져오시는 재림 예

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마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면서 살아가는 힘을 주고 계십니까? 예전에 체험했던 과거의 예수님이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대림 시기와 전례력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해봅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주실 그분을 잘 맞이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 창 신
이냐시오 신부
주례성당 주임



유전
한보



캘리그래피. 김태자 베르베두아 (양산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11.29(월)~30(화)
이창신 신부(주례성당 주임)
12.1(수)~4(토)
이정철 신부(성지성당 보좌)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1.28(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출연 : 피아니스트 윤민선 (창신대 교수)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운진 비비안나
11.30(화) <가톨릭 문화살롱-건축>
출연 : 부산대 건축학과 유재우 베드로



나무의 일생과 대림 시기

사계절을 번갈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날리며 해넘이를 거듭하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자연은 하느님의 천지창조 질서와 조화를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산다는 이야기다. 우리 인간의 삶도 나무의 일생과 닮았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됩니다.”(1코린 15.14)라고 했다. 나무의 한해살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확증하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한다. 산야 지천의 나무들이 묵은 잎새를 날리고 알몸이 되는 것은 다음 해를

기약하며 잎새를 밑거름 삼아 나이를 늘려가는 성장의 시간이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하였다.(루카 2.12 참조) 아기 예수님은 구증궁궐의 황금 요람이 아닌 마구간 구유에서 알몸으로 오심을 동방박사들도 경배하며 증거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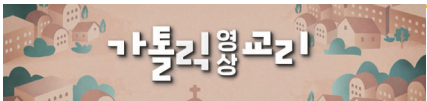
대림 시기 첫날, 첫 주가 시작되었다. 구유에서 알몸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다. 동시에 교회 전례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다.

새로운 출발은 묵은 잎새를 벗어 버리는 일이다. 한 해를 풍성하게

했던 기억들, 결과물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었던 일들, 손해를 보아 억울한 일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일들..., 대림 시기는 모든 잎새를 벗어 놓고 지나간 1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존재 등을 되돌아보는 일도 성장을 위한 일이다. 알몸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나무를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찰하고 자숙하고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되길 소망해 본다.

이 정 재 요셉
금정성당 · 시조시인
paldong808@daum.net



47. 교회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교회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영상 바로보기



가톨릭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을 그 어느 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2항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보편적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기원을 갖는 인류는 하

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타 종교인을 포함해 모든 민족들 안에 뿌려져 있다고 여기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더불어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해마다 1월 18일부터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 1월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며 일치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톨릭영상교리
주보 연재를 마치며...

올해 사목지침 ‘신앙과 말씀의 해’ 실천사항으로 정한 ‘가톨릭영상교리 보기’를 신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주보를 통해 매주 한 편씩 소개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던 교리와 전례,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나시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보편집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신앙생활을 포함한 일상 전반이 고통스럽게 제한되면서, 우리는

예외 없이 ‘슬픔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2021년에도 일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터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연히 본당 공동체의 사목활동은 위축되었고 성사의 은총을 누릴 기회도 한정되었습니다. 교구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외적 성장과 활동보다는 내적 성숙과 내실을 기하고자 ‘신앙과 말씀의 해’를 지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족 단위로 복음서를 이어 쓰고 기도하며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았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교구 사제단이 시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운동’에 온정의 물결이 이어졌으며,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보내고자 하신 교황님의 ‘백신 나눔 운동’에도 많은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동참해주신 교구 사제단과 각 수도회, 그리고 교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구 공동체 역시 온전한 신앙생활의 회복에 앞서서, 그동안 갈대처럼 흔들리며 뿌리가 드러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가톨릭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주춧돌인 ‘성체’와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히 기초하도록 합시다.** ‘성체’와 ‘말씀’의 샘으로 뿌리를 깊이 뻗으면, 아무리 별이 다가워도 생명의 잎사귀가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줄곧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 17.8 참조) 이렇게 성체성사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긴밀히 일치

이루는 가운데 경이로운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느님께 깊숙이 내려져, 어떠한 역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이요 정점으로,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를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주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인 역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1항 참조) 하느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될 그 날까지, 성체를 매일같이 모시면서 삶의 중심자리에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훗날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각자 안에서 기필코 성취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4)

성체성사를 통해 이같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2티모 4.2)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큰 은혜에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난 자녀들이 성체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입니다. 이미 우리는 미사가 중단되어 성체를 모실 수 없었을 때, 성체 조배를 통하여 삶의 힘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남겨둔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사적이며 영적인 친교를 지향합니다. 자주 성체조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합시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항 참조)

둘째,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생활화합시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근원이자 인간 역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거룩한 생명과 영감을 얻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신앙생활의 준비운동'이요, 신앙생활은 '성경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활동과 수고가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에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과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느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1코린 1.25 참조)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경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경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가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시며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 그리고 신앙을 키워주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며, 쓰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덮은 채로 성인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셋째, 병들어가는 지구를 보살피며 살려냅시다.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신앙인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병들어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삶의 터전'이요 '공동의 집'인 지구입니다. 물질주의에 매몰된 욕망으로 일구어낸 과도한 개발과 소비문화로 지구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결과 극한적 폭염과 한파, 재앙적 산불과 폭우, 그리고 위태로운 생태계와 쓰레기 문제 등을 빈번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구를 보살피고 살리는 일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훼손과 오염의 폐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역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

여야 합니다. 이는 현시대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찬미받으소서』, 49항 참조)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합시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2020.10.16.) 참조)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2022년에도 '슬픔과 시련의 터널'을 얼마간 더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터널 저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고 치유 받지 못할 아픔 또한 없습니다. 더욱 큰 믿음과 희망을 안고 아버지 하느님께 묵묵히 나아갑시다. **올 한 해, 교구민 모두가 '성체'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야고 4.8) 우리를 언제나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분께서는 당신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여정에 성모님께서도 늘 함께 해주십니다.

“부산교구의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실천사항

- 1. 성체와 함께**
 - 주 1회 이상 미사와 성체조배 참여하기
 - 가족과 함께 미사 봉헌하기
 - 쉬는 교우 미사에 초대하기
- 2. 말씀과 함께**
 - 성경 통독하기
 - 가족이 함께 신약성경 필사하기
 -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
- 3. 지구와 함께**
 - 회칙 「찬미받으소서」 읽고 되새기기
 - 에너지 절약하여 탄소중립 실천하기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 21,36)

[나만의 성구]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이하여 ‘**말씀과 함께**’의 실천 사항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위한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절취선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
성구 따라쓰기 접수중!!

1년 동안 게재된 성구 따라쓰기를 완료하신 분은 적으신 성구 종이를 묶어, 표지에 성함, 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 **마감 : 12월 12일(일)**

▶ **방문 및 우편 접수**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전산홍보국

2022학년도 신학대학 합격자

본당	이름	세례명
성가정	김민재	시몬
수정마을	박요한	사도요한
올하	이준호	야고보

교 구

교구 은빛여정 성경 잔치(전시)
<코로나!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전시 : 11.30(화) 14:00~12.6(월) 12:00

· 남천성당 1층 만남의 장
전시내용 : 본당 노인대학 학생(어르신)의 창세기 필사 및 완독, 창세기 공부자료, 작품 등

그림 & 생활성가로 목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

- **신청** : 카카오톡에서 <부산교구달력> 채널 추가 후 아래 내용을 보내주세요.
- **판매가** : 3천원/1부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농협 301-2018-0726-51 천주교부산교구
-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보급방법** :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 (추후 공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15일~11월 21일]

소계 : 670,000원

명지셋별Pr. 10,000 뷔뫼뫼드 10,000 김석준 50,000 이정은 100,000 정경자 100,000
정정혜 200,000 박기왕 100,000
박정숙 100,000

누계 : 924,768,55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개재 기간** 2022년 1, 2, 3월 (3개월)
- ▶ **접 수** 11월 29일(월)부터 선착순 / 이메일 (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금 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 **서 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 ▶ **신청서** 교구 홈페이지 우측 '광고신청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 ▶ **문의** 629-8752

광고신청서

<p>서울공예사</p>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법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 (가롤로) · 김경자 (모니카)</p>	<p>조은 모바일 크레인</p> <p>건설현장의 꽃 이동식 타워크레인 (일대/월대) 장비임대 및 현장답사(상담환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p>	<p>성모치과</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 (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p> <p>www.insanlove.com 대 표. 김기룡 (야고보) 죽염, 유황오리진액, 후도액, 친환경 557-5553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p>	<p>성신익스프레스</p> <p>(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p> <p>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업 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p>	<p>세인요양병원</p> <p>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병원장. 오 서 영(마리아) 상담문의 501-7500 부산 동래구 여고로 5 (사직동)</p>	<p>SNU서울비뇨의학과</p> <p>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714-1725 서울대 출신 원장. 박정민 (가브리엘)</p>	<p>가인방문요양센터</p> <p>장기요양 이용 상담 및 신청 대행 국비지원(100-85%)으로 자택 돌봄 교우 요양보호사 모집 및 대기 중 민 병 덕 (사도요한) 010-7448-7858</p>	<p>(주)가나안보청기</p> <p>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원산지 : 독일 * 교우특별우대 * 전세계 모든 브랜드 A/S가능 김도현 (모세) 010-7674-2828</p>

명지신도시성당 교중미사 지휘자 구함

주일 교중미사 / 모집인원 : 1명
문의 : 294-7711(본당 사무실),
010-3864-5915(성가대 단장)

부곡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자격 : PC(한글, 엑셀)사용 가능자, 운전(1종보통)
문의 : 516-2356

부곡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주일 교중미사 / 모집인원 : 1명
문의 : 516-2356(사무실),
010-5851-3050(성가대 부단장)

토현성당 관리장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자격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문의 : 758-6690

기관·제 단체·위원회

가톨릭음악협회 성음악 후원회 감사미사

· 11.29(일) 19:30 · 가톨릭신학대학 대성당
연주 : 안젤리카그레고리오성가단
주례 : 임석수 신부 / 문의 : 010-2084-3903

부산가톨릭학창단 41회 정기연주회

<코로나 그 시간을 건너 우리 모두 희망 앞으로>
(하이든 Te Deum과 포레 Requiem)
· 11.28(일) 19:00 · 부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 이성훈, 오르간 : 이효진, 안예슬
Sop. 강태경, 윤희연, Bar. 이태영
전석 1만원 / 문의 : 010-3932-0958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WVME 부산협의회)

ZOOM과 함께 ME주말을 가정에서 실시간 비대면 ME주말

▶ **일시** : 12.17(금) 20:00~19(일) 17:00
▶ **장소** : 각 가정 ▶ **대상** : 부부(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 **신청** : 051)465-1010(부산ME주말분과)
본당 가정분과 또는 본당 ME 대표

성령새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 기도회
· 12.1(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시간반경
· 12.3(금) 20:30~22:30

영성의집 직원 구함

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숙식 제공합니다 / 문의 : (055)382-9465

군중후원회 군인 성탄위문품 신청

내용 : 성명, 군주소(휴대폰번호), 제대일, 부모 연락처 / 마감 : 11.30(화), 사병에 한함
문의 : 751-3610, (052)274-3608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교리가 힘든 신 분 / 파견교리(본당) :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 462-0334(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교해소 운영

·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 515-0030

전국 교구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쓰기

기간 : 11.28(일)~12.24(금) (27일간)
방법 : 가톨릭 굿뉴스 매일복음쓰기 참조
교구자체 시상 : 우수본당 3개, 개인우수상 3명
주최 : 가톨릭 굿뉴스, 한국평협, 부산평협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2.3(금) 10:30 · 남천성당
문의 : 010-9081-1743, 582-1774

바로로딸 <행복한 책읽기>

· 12.7~2022.2.15 매주 화 14:00~16:00
· 부산 바로로딸 / 회비 : 12만원(교재 별도)
문의 : 465-2173, 010-6880-1611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76.12.2.
이철희(바로로) 신부님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5(일) 09:3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마리아수녀회 알로이시오기지

말씀체험 신앙학교
4개분야(요리/목공/원예/미디어) 체험 및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특별한 하루
대상 : 초·중·고 단체 15명 이상 / 문의 : 250-8900, www.gizi1968.kr(홈페이지 참조)

살레시오미디어(독서미디어) 1학기 신규모집

초1~2 : 책과 함께 놀아요(50분/주1회/필독서 총15권)
초3~6 : 인문교양독서(75분/주2회/필독서 총10권)
중1~2 : 인문독서(90분/주1회/필독서 총10권)
문의 :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중고생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 교육

· 1.7(금)~9(일) 10:00~16:30
(단, 마지막날 12:00까지 / 11시 부모님 초대)
수료자는 VIDES(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가능
문의 :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 청소년, 성인 (비신자 포함)
내용 :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1급)
상담 : 010-4539-3101(수~토 10:00~17:00)

맨발 가르멜 재속 회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지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은 55세 이하인 자 / 문의 : 010-3861-0027(주일팀), 010-9413-9779(월요일), 010-5160-4754(화요일)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대상 :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문의 : 010-2574-2656(일반인반), 010-2642-2556(직장인반)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피정

· 12.2(목)~5(일), 12.9(목)~12(일)
· 성모솔숲마을 / 지도신부 : 문봉한 신부
문의 : (054)373-3955, 010-2573-6204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1.15~18, 1.22~24, 2.12~15, 2.20~22, 2.25~27, 3.6~8, 3.12~15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길맥흥부외과</p> <p><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카, 고주파, 레이저, 보형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754-9975~6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페리얼타워</p>	<p>김용기내과의원</p> <p>[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 용 기(T. 아키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독일보청기</p> <p>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 (아브라함) 송 (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월대로 229. 수인역 7번출구 앞 2층</p>	<p>(주)금정소방</p> <p>소방시설점검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진호(보나벤투라) 514-0119 010-8516-0119</p>	<p>정대수맑은신경과</p> <p>(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학박사 전)부산대학병원장 치 매·뇌졸 중 신경과 과장 두 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혈압·불면 증 남천역 3번출구 612-6100</p>
<p>내일N성형외과</p> <p>최수종 (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코,윤곽,가슴,지방성형,보톡스,필러,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7(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p>	<p>동래광안 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교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아베스)</p>	<p>해맑음농장</p> <p>해남깎쟁절임배추 1박스 20kg 35,000원(택배 포함) 농협 김은채 302-14793-19871 대표. 김해갑 (베드로) 010-7929-8779</p>	<p>스톡화상영어</p> <p>1:1 원어민, 비대면 화상 영어수업 파닉스, 스토리북, 프리토킹, 편리딩 직장인 비즈니스코스, 성인외화 무료 체험 수업 제공 및 친절 상담 변지영 010-4435-0441 (리브가) www.stormenglish.kr</p>	<p>명수울산주단</p> <p>결혼예복, 혼수예단, 계량복 노영옥(베르타) 632-2656 010-3551-2656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11~212호 (4호선 3리안)</p>